

나라전에서 온 카를로스와 한국에서 찾아온 헤럴드 씨.  
스무 번의 계절을 지나오며 두 사람이 배운 건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  
고국에서  
다시 시작되는  
고려인들의 노래  
- 광주고려인마을

뷰파인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인  
고용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VOL. 54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에 가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 「공존」 54호 독자분들께

어느덧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해는 짧아지는 계절, 모두의 바람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몸과 마음이 더 움츠러드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 전력으로 대처하며, 백신 개발 등 희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끈기이 나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관리를 위한 강화된 사증심사와 특별입국절차 등 국경 방역에 계속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 외국인이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등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지원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이는 감염병이나 테러 위기 시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방역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더욱 발 빠른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사회통합 분야에도 꾸준히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기존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에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어감이 강한 'Alien'을 삭제하여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영문표기명(Residence Card)으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라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외국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하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규 근

「공존」 통권 제54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 및 디자인 한국표준협회미디어(02-6240-490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http://www.facebook.com/immigration.kr)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http://www.visa.go.kr)
-  사회통합참정방  
[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

  
**PEOPLE ZONE**

4

**나에게 한국은**  
“나는 오늘도 너를 배워가고 있어”  
- 카를로스 고리토&구혜원

8

**동네 한 바퀴**  
고국에서 다시 시작되는 고려인들의 노래  
- 광주고려인마을

12

**쉽표카페**  
당신의 '코리아드림'은  
안녕한가요?

14

**마음을 잇다**  
'K-방역',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간다

16

**문화돌보기**  
당신의 언어로 써내려간 우리의 이야기  
- 재한외국인 작가 에세이 소개



12



4



8



18



34

  
**WIN-WIN ZONE**

18

**출입국 인사이트 ①**  
외국인 범죄는 우리가 프로! '이민특수조사대'

**출입국 인사이트 ②**  
국경 안전의 히어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28

**어울림 공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4

**뷰파인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인 고용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38

**슬기로운 한국 사용법**  
나에게 딱 맞는 비자.  
비자포털로 똑똑하게 알아보자

40

**출입국 인사이트**



38

“나는 오늘도 너를  
배워가고 있어” ♡


글 | 김소리 사진 | 이동훈


카를로스 고리토  
& 구혜원




브라질 출신 방송인이자 주한브라질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카를로스. 어린 시절 날마다 지구본을 들여다보던 그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가지 않는 곳을 향한 열망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의대도 법대도 붙었지만 외교학과에 진학한 것 역시 그래서였다. 2008년, 교환학생으로 한국 땅에 첫발을 디딘 날부터 오늘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 기회들을 찾고 잡으며 이곳에 뿌리를 내려왔다. 가장 소중한 기회는 선물처럼 찾아온 혜원 씨와의 만남이었다. 스무 번의 계절을 지나며 두 사람이 배운 건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두 사람의 일상이 녹아 있는 동네, 부암동의 한 카페에서 카를로스와 구혜원 커플을 만났다.


### 결혼을 앞두고 계시죠. 두 분의 첫 만남이 궁금해요.


 대학생 때 브라질 교환학생을 가서 언어를 배워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포르투갈어를 연습할 기회도 통 없더라고요. 마침 주한브라질대사관과 모교의 브라질 문화원이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브라질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 참석했죠.

 제가 그날 행사의 진행자였어요. 번호를 주고받고 8개월 정도 친구로 지내다 연인이 됐죠. 재밌는 게, 전 이미 혜원을 알고 있었어요. 혜원이 브라질 교환학생을 가려고 브라질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러 왔을 때 대사관에 소문이 났거든요. 외대 학생도, 포르투갈어 전공자도 아닌 학생이 브라질을 간다고. 그만큼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캐나다에 어학 공부하러 갔을 때 남미 친구들을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인생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입시 공부에 몰두하느라 정작 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 친구들은 ‘나는 이게 좋아’ ‘이건 별로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언젠가 꼭 남미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외국인이라 서로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브라질 사람들은 연애방식이 굉장히 자유롭다고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외국인과의 연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언어, 역사, 문화를 잘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시나 노래 가사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과는 연애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카를로스를 만나고 이런 외국인도 있구나 싶었어요. 음식도 저보다 잘 먹고, 한국문화를 늘 궁금해해줘요. 결혼을 결심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이모님, 김치 좀 더 주세요!’ 하더니 김치를 굽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고기 기름 위에다가. 그때 느꼈죠. 아, 애다. 애랑 결혼해야겠다(웃음).


### 어떤 부분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나요?

 시간관념이요. 너무 달라요. 한국은 약속시간을 정하면 보통 10분 전 혹은 정시에 맞춰 오잖아요. 카를로스는 안 그래요.

 브라질 사람들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늦는 거고요.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웃음). 저도 말할 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들 꾸미고 만나요?

 민낯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카를로스가 자기 친구를 만나자고 해요. 당연히 싫잖아요. 근테 이해를 잘 못 해요. 처음 보는 친구를 그냥 데리고 와요. 첫 데이트 때 모습도 있을 수가 없어요. 10년 입어서 닳고 구멍 난 카고 반바지를... 대사관에서 수트 차림만 보다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첫 데이트였어요.

 걸치레하지 않은 거죠. 소중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덕분에 저도 이런 부분에선 전보다 편해져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서로 존중하고 공유할 때 관계가 평등해지죠.

”



그리고 진짜 나쁜 모습이면 못 보여주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아, 진짜 나빴어. 진짜 나빴다고.

### 국제연애에 꼭 필요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상대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영어만 쓰는 커플도 많더라고요. 둘이 대화하는 데는 불편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가족은 영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건상 언어를 배우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상대방의 가족과 통역 없이 한마디라도 직접 나누려면 책 한 번이라도 보고 가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동의해요. 상대 문화에 조금만 호기심을 가지면 반드시 좋아하는 포인트 하나쯤은 찾을 수 있어요. 음식, 노래, 영화, 뭐든지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서로 존중하고 공유할 때 관계가 평등해지죠. 그래야 아이들도 두 문화를 다 품고 건강하게 자랄 거고요.

### 한국에서 국제커플로 사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나요?



최근에는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돼요. 외국인 부모 성을 주는 일도, 엄마 성을 따르는 일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관련 정보나 사

레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은 점이 힘들어요. 어느 쪽이 아이한테 더 나올지도 고민이고요.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지만 대중 인식이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다문화를 내 일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이라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움직이는 몸짓들이 필요하겠죠.

### 카를로스에게 한국은?



저에게 한국은 ‘둥지’예요. 둥지를 만드는 데는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지만 만든 후에는 안식처가 되죠. 떠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멀리서 날아온 새예요. 작은 부리로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며 둥지를 쌓다 보니 여기 사는 예쁜 새도 만났어요.

### 카를로스는 법무부 이민자멘토단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가 1기인데,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다들 대한민국 사회통합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더 평등하고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를 잘 이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멘토단 활동의 일환으로 법무부 연수원에서 브라질 다문화 관련 강의를 했어요. 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 얘기였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는 시리아 출신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한국-브라질 국제커플인 두 사람의 일상을 담은 채널  
(엘레나와 가르르)



한국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채널  
(코레아니시마 엘레나)



카를로스과 함께 알아보는 전화발신기록 출입명부 관리  
(법무부TV)

죽은 포르투갈 이민자였어요. 아버지 친구 중에는 일본 분이 계셔서 종종 야끼소바를 해주셨죠. 한국도 '다문화'라는 언어로 특정 개인들을 규정하기보다는 그들과 친구처럼 일상을 공유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브라질에서 그렇게 살아 온 것처럼요.

### 두 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한국 언어와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한국의 언어, 역사, 신화 그리고 한국 수화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어왔어요. 앞으로 언어권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싶어요.

4년 정도 같이 진행해온 프로젝트예요. 해당 국가와 한국의 문화, 언어를 아주 디테일하게 비교하며 알려주는 게 저희 콘텐츠만의 장점이예요. 선생님이 직접 해당 국가 언어로 답변도 달아주죠. 포르투갈어 콘텐츠는 2만 명 정도가 수강했고 스페인어 론칭을 앞두고 있어요. 동남아, 아프리카 등 더 많은 문화권으로 확장해가고 싶어요. 한국문화를 소

개하고 국제커플의 일상을 전하는 제 유튜브 채널도 계속 운영해갈 예정이고요.

### 한국에 살고 있는 국제커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국제연애 중인 한국인 분들께서는 가족과 적극 소통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은 홀로 타향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상대방을 가족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중간 다리가 되어주면 좋겠죠. 이진 한국인인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분들의 경우 연애와 별개로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잘 이루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또 다른 친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방법들도 잘 알아둬야 하고요. 연인에게 의지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할 몫이에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지만 내가 '발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 발견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열고 이곳에서 자신만의 네트워크 기반을 잘 만들어가길 바라요. **共**

# 고국에서 다시 시작되는 고려인들의 노래

- 광주고려인마을

글 | 김소리 사진 | 주성완

불의에 항거하고 온정으로 이웃을 품어온 역사를 가진 곳, 전라도 광주. 그중에서도 광산구 월곡동 일대는 '고려인마을'로 잘 알려져 있다. 고려인들은 강제이주의 역사, 척박한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서러운 세월을 지나온 사람들이다. 이제 이들은 다시 돌아온 고국 땅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다.





## 새로이 꾸린 삶의 터전, 광주고려인마을

광산구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인 월곡시장에서 도로 하나를 건너면 광주고려인마을의 입구를 알리는 입간판을 만난다. 평범한 옷가게나 휴대전화 매장 하나에도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함께 적혀 있는 모습. 마트 안에는 러시아식 육가공품과 주류, 간식까지 이국적인 제품들이 가득하다. 다른 곳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음식점들도 눈에 띈다. 모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즐겨먹는 메뉴들이다. 이 같은 동네 분위기 덕에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외국인들이 광주고려인마을 인근에 둥지를 트는 경우도 많다.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는 끼니때마다 커다랗게 구운 화덕 빵을 곁들여 먹는다. 광주고려인마을에도 중앙아시아식 빵을 구워 파는 가게들이 적잖이 보인다. 마트 안에서도 현지식 빵이나 케이크를 조각으로 판매한다. 케이크를 무심하게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것 하나까지도 소소하게 낯선 모습이다.



## 떠나고 떠나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 '고려인'

'고려인'이란 연해주를 비롯한 구 소련 지역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와 그 후손을 총칭하는 이름이다. 우리민족이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한 역사는 18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이 생활고로 인한 농업 이민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억압을 피해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망명하면서 연해주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됐다. 그러나 일본군이 연해주 침략을 목적으로 한인들을 첩자로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소문이 돌아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정책을 실시한다. 약 3천여 명의 고려인 지도자와 지식인이 처형되고, 나머지 고려인들은 어떠한 안내나 설명도 없이 화물차와 가축운반 차량에 짐짝처럼 실려 매서운 시베리아 땅을 건너야 했다. 낯선 중앙아시아 땅에 빈손으로 도착한 이들은 토굴을 파고 황무지를 개척하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다. 연방국가로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살던 때와 달리 러시아 외 11개 독립국으로 분리되면서 각 국가 내에 배타적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아시아 땅에서 고려인은 다시 차별과 박해를 받아야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인 두려움도 나날이 커졌다. 많은 고려인이 조상들이 살던 연해주 지방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후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고려인에게 재외동포비자를 허용하면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인 입국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제 조상들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가고 있다.



## 광주고려인마을의 아름다운 공존

설움의 세월을 함께 지나왔기 때문일까. 광주고려인마을은 그야말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끼니때가 되면 삼삼오오 모여 직접 만든 반찬과 먹거리로 식사를 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고 돌보며 가족처럼 지낸다. 마을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고려인 아이들을 모두 무료로 돌봐준다. 아이들은 공부와 각종 체육 및 문예활동을 하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린다. 때마다 소풍이나 체험활동을 가기도 하며, 마을 행사에서 무대를 꾸미거나 길거리 공연을 열기도 한다.

광주고려인마을은 지자체 및 각종 후원단체와 연계해 체계적인 주민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요일별로 제공되는 의료, 법률 서비스는 물론 각종 교육과 강연도 제공한다. 24시간 편성으로 해외까지 송출되는 고려인마을 라디오방송 '고려FM'을 통해 서로를 이어줄 소식과 이야기도 나눈다.

고려인들은 지역 미화나 방법에 힘쓰며 선주민들과도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지난달 광주고려인마을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제5회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봉사자의 발길이 뜸해지고 경로당 급식 공급도 끊기면서 외롭게 지내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고려인 전통음식을 정성스레 담은 도시락도 전달했다.

광주고려인마을은 고려인의 가슴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7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과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를 공동 제작해 고려인의 시와 음악, 춤으로 애환 가득한 삶과 역사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앞으로 마을 내 역사문화탐방코스 해설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관광객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중양아시아에서 나고 자란 고려인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편이어서 처음 입국하면 모든 게 막막하다. 이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오는 데는 ‘고려인 대모’라 불리는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의 역할이 컸다.

신 대표의 아버지는 14살이 되던 해 연해주에서 중양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신 대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나고 자랐다. “일본인이랑 조선인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연해주에 있는 일본인들을 축출하려고 우리한테 전부 소련 여권을 내주면서 강제로 내보낸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면 총살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다 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주변에 일본 간첩이 있다고 두려워하셨지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1991년 소련 내 여러 민족이 독립을 하면서 이민족에 대한 배척이 심해졌다. “우리 다 소련학교를 다니며 소련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독립하고 나니 ‘여기서 살 거면 우즈베키스탄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많은 고려인들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조상들의 땅인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으로 이주했다. 신 대표도 언니와 함께 무작정 열차에 올랐다. 열차는 시베리아를 달리고 또 달렸고, 도시 외곽에 겨우 방 하나를 얻어 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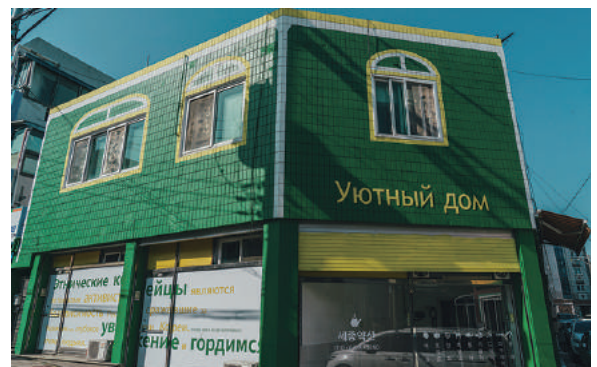
2001년 가을, 한국인과 결혼한 딸의 초청으로 신 대표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당연히 한국말은 할 줄 몰랐다.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 광주에서 외국인 정착 사역에 힘쓰고 있던 이천영 목사를 만났다. “한국에 와서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사람도 없었어요. ‘고려인이면 같은 민족이 아니냐’며 반가워해주



는 이 목사님의 말에 울컥하더라고요.” 고려인뿐 아니라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을 살신성인으로 거둬주는 이 목사의 모습을 보고 신 대표는 그의 활동을 돕기 시작했다.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 12시까지 돌아다니는 일이 허다했고, 고려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새벽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부지런히 사는 게 한평생 몸에 뻐어요.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저 하는 거죠. 힘든 것도 몰랐어요.” 이런 노력들 덕에 오늘의 광주고려인마을이 있는 것일 테다.

“오랜 세월 남의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고국이 잘살게 되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고 자란 그곳을 고향이라 여겼어요. 와보니 알겠더라고요. 같은 생김새, 같은 이름을 가진 내 민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고향 땅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부모 세대보다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예요.”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조국이 따스한 품 자락을 더 많이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共**





## 당신의 '코리안드림'은 안녕한가요?

글 | 최병규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일하러 온 이들을 '이주노동자'라고 한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이주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언어, 문화, 제도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지만 해결하는 것도 자국민처럼 쉽지가 않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사례 1 임금체불

국내 한 농장에서 근무하던 방문취업자 자격의 중국동포 A씨. 농장주에게 임금 350만 원 정도를 체불당해 어렵사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A씨가 이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A씨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센터는 노동청과 협조해 유선으로 중국어 통역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농장주는 “임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으니 끝까지 법대로 해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사실과 관련한 확인서류를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의 자원을 활용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 사례 2 근무지 변경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무지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팸 국적 노동자 K씨는 한 섬유공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사업주가 고용의사를 번복했고, K씨는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직했습니다. 옮긴 근무지는 화학약품 냄새가 극심했고, 냄새 때문에 가슴 통증을 느낀 K씨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횟수 3회 제한에 걸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전 사업주가 계약 당일 K씨를 '퇴사'로 처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K씨는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전 사업주에게서 사유정정신청서를 받아내 겨우 새 사업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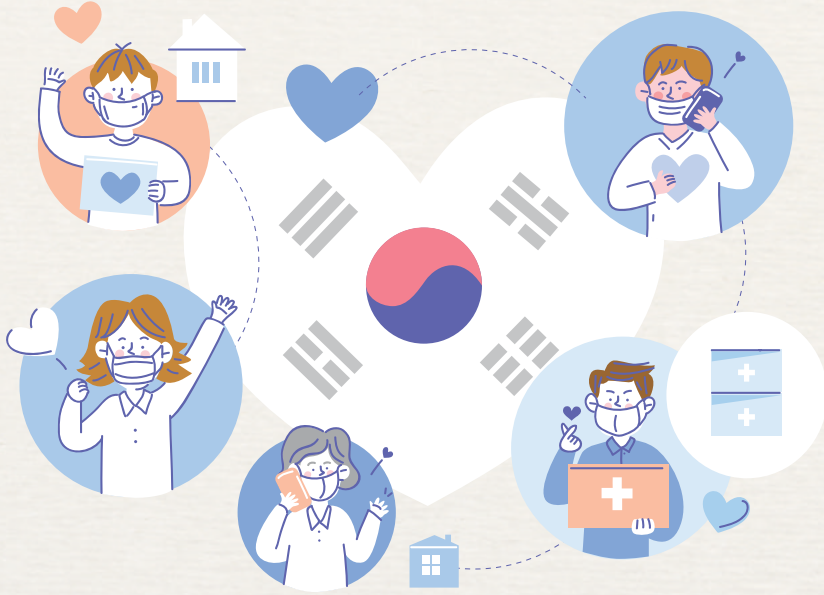
### 사례 3 근로 중 사고 및 재해

타국 생활에서 겪는 고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가장 곤란한 것 중 하나가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가 난 경우, 한국의 법과 보험시스템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동포인 W씨는 농장에서 돼지 사육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N씨가 그의 일을 돕던 중 돼지를 묶는 밧줄이 끊어지면서 고리의 쇠덩이 부분이 N씨의 다리로 날아왔습니다. N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는 1회 수술비만 부담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부부가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던 부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부가 일하던 농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다 피해자인 N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 처리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례에 대해 계속 알아보던 중,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센터는 전문자원 활동가인 변 호사와 상담을 연계했고, 다행히 N씨는 교통사고 보험처리로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共**

###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 1 119, 112를 비롯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항상 외워둡니다.
- 2 상황을 '법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위법 여부와 관련 구제책을 알아봐야 합니다.
- 3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4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병규님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통역·상담·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다양한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K-방역',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간다

글 | 신사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구성림 사무관  
\_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파견

구성림 사무관은 지난 1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에 파견근무 중이다. 파견지가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입국 외국인의 비자 종류, 장·단기 체류 여부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대상자 분류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지식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국의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출발 전 72시간 내 PCR\* 검사 1회를 받아야 하던 규정이 48시간 내 PCR 검사 2회로 변경된 바 있다. 구 사무관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우리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 끝에 PCR 검사 지정 병원 및 주말 운영 의료기관 확대에 힘을 보탰다.

구 사무관은 “파견근무로 출입국 업무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며 “제가 하는 일이 국가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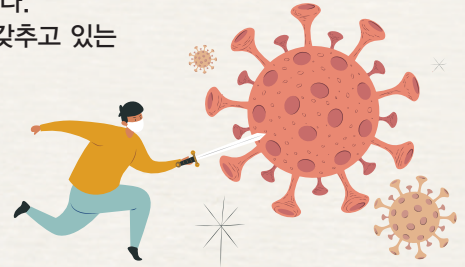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손병찬 팀장  
\_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됐던 손병찬 팀장은 매일 아침 대책회의에 참석해 법무부 관련 조치 및 건의사항을 청취 및 공유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관련 대응이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되는 만큼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에 신속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적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손 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열악한 근무환경, 계속해서 이어지는 긴장상황 속에서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며 피로도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숙소 앞 금강의 아름다운 물안개와 공산성의 야경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며 “이번 파견 경험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어 힘든 만큼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방역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인 만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환자 관리, 외국인 통역 등 타 부처의 외국인 관련 분야에 직원을 파견·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K-방역, 출입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웠을 성과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운영봉 팀장**  
**인천공항 코로나19 범정부지원단 파견**

인천국제공항의 코로나19 범정부지원단은 코로나19 중앙 사고수습본부에서 인천공항 내에 설치한 기관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소속 관계자 1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운영봉 팀장은 ▲유증상자 대리수속 ▲검역 당국의 요청에 따른 특별입국 불허 ▲모든 입국자의 국내 주소지 입력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지 적합성 판단 등 법무부의 특별 검역지원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공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각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자가격리 직전 사정이 생겨 격리지를 신속하게 변경해야 하거나, 격리기간 중 부득이하게 출국해야 하는 민원인의 정상출국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윤 팀장은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 만큼 어렵고 힘든 점도 있지만, 현재는 비교적 원활하게 맡은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덧붙여 “합동근무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해결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추후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정부기관이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대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이처럼 방역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 앞에서 윤 팀장을 비롯한 인천공항 코로나19 범정부지원단 모두가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지오 반장**  
**생활치료센터 파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정지오 반장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통역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관리 지원을 맡았다. 정 반장은 2주간의 파견근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각각 다른 시설에서 지내던 가족이 같은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운 일을 꼽았다. 인도에서 온 3명의 가족 중 엄마가 음성, 아빠와 아기가 양성 판정을 받아 가족이 서로 다른 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고, 이를 딱하게 여긴 정 반장이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이들은 같은 시설에 머물 수 있었다. 정 반장은 “이번 파견근무로 인도인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장서윤 반장**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자 통역 업무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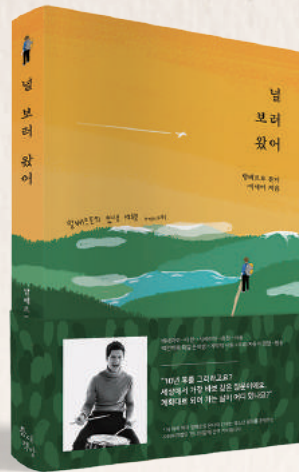
장서윤 반장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갓 발령을 받아 바쁜 와중에 포항시의 통역 지원 요청을 받았다. 요청 전화를 받자마자 장 반장은 자신의 일정을 잠시 미뤄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발 벗고 나섰다. 요청 건은 르완다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통역이었다. 그러나 막상 전화를 해 보니 같은 국적의 친구가 대신 연락을 해온 것으로,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차분하게 필요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격리시설까지 문제없이 안내할 수 있었다. 장 반장은 “열심히 공부해온 영어를 도구로 삼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제도와 노력에도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무척 뿌듯하다”고 전했다. **共**

# 당신의 언어로 써내려간 우리의 이야기

-재한외국인 작가 에세이 소개

책을 쓴다는 건 세상에 한 권의 목소리를 더하는 일이다. 한국에서, 한국어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외국인 작가들이 있다. 지난 삶의 여정, 만났던 사람들,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꿈까지, 모두 한국 땅에서 살고 사랑하고 배우며 쌓아온 소중한 이야기들이다.

글 | 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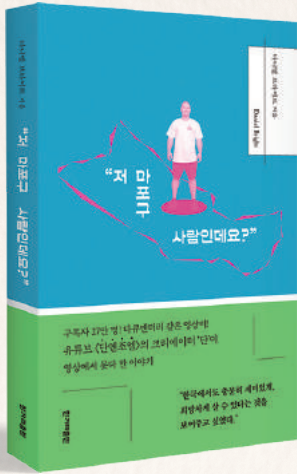
## 넌 보러 왔어

•알베르토 몬디•

“당시 나는 노트에 이런 글귀를 적어두었다.  
‘유일한 행복은 기대하는 것’”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의 자전적 에세이로 이탈리아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동아시아의 끝 한국까지 온 여정과 정착기를 담았다. 제목인 ‘넌 보러 왔어’는 그가 여자친구에게 했던 고백인 동시에 한국을 향한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삶의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방향하는 그의 이야기는 방송에서 보여준 사랑꾼 이미지보다는 모험가의 모습에 가깝다. 그의 고향 미라노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곳이었지만 평범하고 변화가 없는 삶은 그와 맞지 않았다. “미래를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알베르토는 2007년 한국행을 결심했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한국 취업 시장에서 백전백패로 쓴맛을 보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우리네 청년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선택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매순간 고군분투해온 그의 이야기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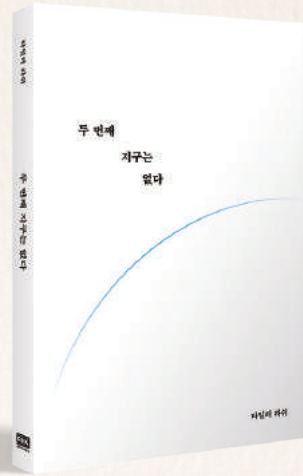


## “저 마포구 사람인데요?”

●다니엘 브라이트●

“한국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희망차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영국 웨일스 출신으로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다니엘은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에 조쉬의 친구로 종종 등장하며 얼굴을 알리다가 또 다른 친구 조엘과 함께 유튜브 채널 <단앤조엘>을 만들었다. 구독자수 27만 명의 <단앤조엘>은 한국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미로 담아왔다. 《저 마포구 사람인데요?》는 다니엘이 유튜브를 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 동네 할머니, 소설가, 시장상인까지 국적과 직업, 인종과 세대를 넘나들며 삶을 성실히 버텨가는 이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커피 한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다니엘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끔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고, 어느 날엔 깊은 밤까지 술잔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국의 ‘틈’에서 발견한 사람과 이야기들은 그를 한국의 ‘결’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었다. 한국에 대한, 사람에 대한 다니엘의 애정과 시선이 궁금하다면 책장을 펼쳐보자.



##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목소리를 못 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 출신 방송인이자 ‘뇌섹남’ 이미지로 잘 알려진 타일러가 기후변화 책을 썼다는 사실이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기후위기 해결은 타일러의 오랜 꿈이자 그가 줄곧 품어온 화두다. 타일러는 2016년부터 세계자연기금(WWF)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 수도를 열면 물이 쏟아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숨을 마시고 뱉지만 우리는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공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산업과 소비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기후위기와 멸종 위기에서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서 타일러는 자연과 인간 존재를 연결하는 성찰과 환경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책의 디자인에도 직접 참여했다. 잉크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하는 등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그는 성실히 증명해냈다. **共**



## 외국인 범죄는 우리가 프로! ‘이민특수조사대’



글 | 김소리 사진 | 서울이민특조대 · 부산이민특조대 제공

전국을 누비며 출입국 관련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검거하고 관련 범죄를 소탕해온 ‘이민특수조사대’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씬 없이 달려온 이민특수조사대의 활약상을 살펴보자.



**전국에서 단 두 곳뿐인  
외국인 체류범죄 수사  
전문기관**

많은 외국인이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한다. 합법적으로 취업자격을 받기 힘든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과정에서 ▲위장 결혼 ▲초청장 및 증명서 위조 등을 통한 불법입국 ▲유형업소 불법고용 ▲허위 난민신청 ▲밀입국 등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범죄가 발생한다.

이민특수조사대(이하 ‘특조대’)는 이 같은 외국인 체류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조대 조사관들은 사법경찰로서 공무원과 형사의 신분을 동시에 가진다. 국익에 위해를 가하는 외국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조사하며 조직적·고질적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브로커를 적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및 경찰과 공조해 테러단체, 극단주의 과격단체 등의 국내 활동을 저지하는 등 국내 대테러 활동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SNS에 게시된 글과 사진을 분석해 테러혐의 외국인 2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처리하기도 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지능화 범죄에도  
강력 대응**

최근 출입국 관련 범죄가 전보다 다양해지고 불법체류자와 브로커의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다. 단순 불법체류가 아니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지르는 교묘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수사 활동 및 역량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SNS를 통한 브로커 접선 등 온라인 범죄 모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를 진행할 때 압수영장으로 전자기기를 확보해 분석하는 일도 필수가 됐다. 이 같은 범죄 양상 및 흐름에 발맞춰 서울특조대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개설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서울특조대 정진성 수사관은 “범죄가 점차 지능화하면서 사이버 증거 확보가 많아진 만큼 특조대에 설치된 포렌식 장비가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특조대는 더욱 전문적이며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

**범죄유형별 기획조사 실적**

(단위: 건) ■ 서울이민특조대 ■ 부산이민특조대

연도	유형	불법 출입국· 밀입국	위변조 여권행사	허위 초청	위장 결혼	허위 투자	불법취업 알선	유형 서비스	무자격 강사	기타 범죄	합계
2010		2	22	7	2	0	9	17	5	6	70
2011		13	51	28	44	1	12	9	1	6	165
2012		6	82	24	50	0	4	2	0	26	194
2013		2	29	38	53	1	7	5	2	21	158
2014		7	65	20	30	0	9	25	1	19	176
2015		9	55	20	24	0	19	30	1	13	171
		11	1	1	12	0	6	15	3	3	52
2016		12	63	44	11	0	20	12	1	14	177
		38	12	5	10	0	27	18	2	8	120
2017		31	13	55	3	0	40	12	5	20	179
		30	13	10	1	0	15	41	3	3	116
2018		25	3	59	5	0	16	11	0	56	175
		8	3	8	3	0	43	47	2	8	122
2019		10	3	54	7	0	20	11	0	82	187
		10	5	10	2	0	38	26	0	29	120

고 있다. 부산특조대 신승훈 수사관 역시 “부산특조대가 처음 출범할 때보다 전문성과 사건 송치능력이 훨씬 향상했다”며 특조대 수사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서울특조대 허정현 수사관은 “나에게는 여러 수사 중 한 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일일 수 있는 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결과를 내야 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의 가치를 강조했다.

**특조대는 오늘도  
출동한다!**

특조대는 송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이탈, 도주, 대테러 등 유관기관 협조, 진정, 기획조사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전국을 누비다 보니 밤샘과 주말근무, 긴급 출동도 일상이다. 부산특조대의 정수정 수사관은 “찾은 외박과 출장, 돌발적인 스케줄 때

**“기민한 수사기관으로 평가받길”\_김병철 서울특조대장**

**Q. ‘특조대, 이것만은 알아달라!’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A. 특조대는 출입국업무에서도 생소한 ‘수사’ 분야를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야말로 ‘개척’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국민들에게 어떤 기관으로 평가받고 싶으신가요?**

A.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고, 범죄의 유형과 수법도 계속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이민자의 구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 우리 사회 구성구석을 늘 주시하면서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수사기관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서울특조대가 꼽은 뉴스 Top 5**

1. **외국인 배달알바 대규모 적발(2020.7)**  
다국적 라이더를 모집해 외국인 131명을 불법고용한 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2. **184명 가짜 난민 양산 로펌 대표 등 12명 검찰 송치(2018.7)**  
184명 외국인에게 허위사실로 난민신청하도록 알선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및 관련자 5명 구속, 7명 불구속 송치
3. **사증 부정발급한 재외공관 행정원 등 4명 구속 및 불구속(2018.7)**  
파키스탄인 20명에게 사증을 부정발급한 재외공관 직원 및 브로커 등 3명 구속, 1명 불구속
4.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사 검찰 송치(2018.6)**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입국시킨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총수 일가 및 관계자 11명 불구속 송치
5. **대만인 운영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2017.12)**  
관계기관과 공조해 거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대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51명 검거



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모든 범죄를 막을 순 없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뿌듯하다”고 전했다. 부산특조대 신승훈 수사관 역시 “난민신청 허위서류 제출자를 강제퇴거 처리한 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신청 중 허위서류 제출 건이 크게 감소했다는 말을 듣고 무척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특조대 정진성 수사관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에 혼신을 다하는 동료들에게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작성한 서류 한 장이 브로커와 불법 외국인을 줄이는 길이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며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共**

이민특조대 브이로그  
〈법무부TV〉



● **“다양한 범죄에 맞춰 업무역량 키운다”\_김무진 부산특조대장**

**Q. 10년간 특조대가 가장 발전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A.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수사관들의 업무역량이 일취월장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 건수는 물론 양상도 다양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진화하는 범죄에 앞서 나가는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 특조대가 나아갈 방향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특조대는 테러, 마약, 마피아, 위조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녁과 주말까지 반납하며 불철주야 수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증원해 더욱 빠르고 섬세한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이익, 국민안전,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부산특조대가 꼽은 뉴스 Top 5**

1. 제주무사증 이탈 알선 브로커 적발 및 구속 송치(2019.3)  
제주-여수 화객선에 무비자 외국인을 몰래 태워 입국시킨 부부 중 한국인 남편 구속, 몽골국적 배우자 불구속 송치
2.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한 한국노총 간부 적발 및 불구속 송치(2019.7)  
불법체류 베트남인 168명을 건설현장에 불법취업 알선한 한국노총 간부 불구속 송치
3. 140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2명 구속(2020.8)  
난민 심사기간 취업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 작성토록 한 외국인 난민 브로커 2명 구속 송치
4. 코로나19 약용, 항공권 위조로 체류기간 연장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검거(2020.10)  
출국하지 못하는 중국인에게 52건의 위조 항공권 제공,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불구속 송치
5. 부산 감천항 무단이탈 베트남선원 검거 및 구속 송치(2020.10)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선박의 베트남선원 2명이 도주 및 밀입국해 경주 감포항, 경북 영덕 등에서 검거





# 국경 안전의 히어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 the hero ensuring our border security

글 | 김소리 사진 | 엄태현

2001년, 인천에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를 책임지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도 첫발을 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국경의 최일선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 국가 최대 관문을 지키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 the gatekeeper of the largest gateway to Korea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첫해인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으로, 내·외국인 이용객 수만 지난해 기준으로 6,679만 명을 기록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 명 한 명 철저한 승객 심사로 국경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각종 문서 및 바이오정보 감식 ▲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수집 정보 분석 ▲ 사범처리 대상자 또는 고위험환승객 특별 관리 등 각종 조사 및 보안 관리 ▲ 증명발급 업무까지 인천공항 내 출입국심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관들의 손을 거친다.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출입국심사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왔다. 2005년 기계판독여권(MRP) 체제 도입, 2008년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국민출국신고서 등 각종 서류 제출 및 날인 등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심사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효율성을 높여왔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ince it was opened in 2001, is the best well-known gateway to Korea. As of last year, the airport served as a destination, departure or transit point for 66.79 million people, including non-nationals and Korean nationals. A full spectrum of immigration work is handled by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which is at the front line of safeguarding our borders through watertight immigration clearance. Our officers at the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

fice are responsible for handling all sorts of immigration work and issues arising at the Airport such as a) verification of document authenticity and biometric information, b) collection and analysis of a wide range of data by utilising various systems, c)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of lawbreakers and high-risk travellers and d) issuing certificates to name a few. It has also strived for more efficient and spotless immigration clearance as long as it does not compromise with clearance principles. It led the introduction of machine readable passports in 2005, Smart Entry System in 2008, reduction of required documents, such as abolishing departure cards, and streamlining work procedures.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워진 ‘특별입국절차’

#### ‘Special Entry Procedure’ introduced as a post-COVID measure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입국 승객 수는 대폭 줄었지만, 검역기능을 강화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면서 입국심사 절차는 훨씬 까다롭고 복잡해졌다. 국경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 흐름을 자세히 알아보자.

Although airport passenger traffic de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Pandemic, immigration clearance procedure became much complex and time consuming as Special Entry Procedure came into force. The following will provide you with some information how the Procedure works.

### 특별입국절차 흐름도

#### How Special Entry Procedure works step-by-step



※ 원칙적으로 무증상 내국인 및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인 자가격리,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인 시설격리 적용

In principle, asymptomatic Korean nationals and long-term foreign residents with a place of residence in Korea are allowed to self-isolate, and asymptomatic short-term foreign residents are directed to a designated facility.

**서류교부**  
Issue documents



**입국심사**  
Immigration clearance



**유증상 전용 심사**  
Symptomatic passengers special immigration counter



**특별입국절차 시행 전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관의 입국심사 업무 비교**

How an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r handled/handles immigration clearance pre/post-Special Entry Procedure

**무증상 외국인 입국심사**

Immigration clearance of asymptomatic foreign nationals

Before	After	
1분 소요 Clearance time: 1 minute	8분 소요 Clearance time: 8 minutes	
	<b>Step 1</b>	<b>Step 2</b>
	<b>코로나19 관련서류 교부 및 확인</b> Hand out COVID-19 document package	<b>특별입국심사</b> Special Entry Procedure
<b>심사시간 8배 증가</b>  <b>x8 more clearance time</b>	① 국내주소 확인 및 입력 ② 격리유형별 서류(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격리통지서 등) 교부 및 승객서명 확인 ③ 격리유형별 표찰 교부 ① Address in Korea is verified. ② A document package depending on passenger type is handed out, which needs to be signed. ③ An identification tag is handed out depending on isolation type.	① 지문/안면정보 취득(FBIS) ② 입국적격여부 확인 ③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및 진단서 확인 ④ 각종 통지서 등에 대한 수령증 스캔 ⑤ 적격자 입국허가/부적격자 재심인계 ① Fingerprint & facial image are collected (FBIS). ② Entry eligibility check is conducted. ③ Negative PCR test result certificates and medical certificates of all foreigners from High-risk Countries are checked. ④ Receipt confirmation slip of COVID-19 document package is scanned. ⑤ Entry permitted for qualified travellers, disqualified travellers are directed to secondary inspection.



## 무증상 내국인 입국심사 Immigration clearance of asymptomatic Korean nationals

Before	After	
<b>20초 소요</b> Clearance time: 20 seconds	<b>4분 소요</b> Clearance time: 4 minutes	
<b>심사시간 12배 증가</b>  <b>x12 more clearance time</b>	<b>Step 1</b> 코로나19 관련서류 교부 및 확인 Hand out COVID-19 document package	<b>Step 2</b> 특별입국심사 Special Entry Procedure
	① 격리통지서 등 서류 교부 및 승객서명 확인 ① A document package is handed out, which needs to be signed (e.g. Isolation Notice).	① 입국적격여부 확인 ② 국내주소 확인 및 입력 ③ 각종 통지서 등에 대한 수령증 스캔 ④ 적격자 입국허가/부적격자 재심인계 ① Entry eligibility check is conducted. ② Address in Korea is verified. ③ Receipt confirmation slip of COVID-19 document package is scanned. ④ Entry permitted for qualified travellers, disqualified travellers are directed to secondary inspection.
① 입국적격여부 확인 ② 적격자 입국허가/부적격자 재심인계 ① Entry eligibility check is conducted. ② Entry permitted for qualified travellers, disqualified travellers are directed to secondary inspection.		

무증상자 입국심사는 위의 그림과 같이 내·외국인을 구분해 진행한다. 내국인심사도 그러하지만 특히 외국인심사의 경우 기존에 없던 절차가 상당수 추가되면서 심사시간이 대폭 증가했다. 국내 주소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부터 격리유형별 표찰 교부, 특정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서 확인 등이 모두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추가된 심사 절차들이다.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승객과 분리해 입국심사를 진행한다. 방역장치를 강화한 유증상자 전용 특별입국심사대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중증 유증상자는 대리수속을 거쳐 입국심사를 완료한다.

Immigration clearance for asymptomatic travellers are separately conducted for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nationals. New screening steps are added not only for Korean nationals, but especially for foreign nationals, which results in greater immigration screening time. Immigration officers now have to verify the address of residence in Korea, hand out identification tags depending on passengers' isolation type, check

medical certificates of foreign residents from selected countries, which are all steps added to the existing immigration screening procedures after the Pandemic.

Symptomatic travellers are separated from other passengers and will be directed to a dedicated special immigration counter. Those with severe symptoms can complete immigration clearance through a representative.

### ✓ CHECK!

- All foreign nationals departing from High-risk Countries\* must possess a certificate confirming a negative PCR test result\*\*.
- \* 5 countries: Bangladesh, Nepal, Kyrgyzstan, the Philippines, Uzbekistan (As of 12 Nov. 2020)
- \*\* This is a certificate used to confirm whether he/she is a COVID-19 patient.
- Double-check whether you have all required documents and all information is correct.
- Your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in Korea must be accurate.
- Do comply with instructions told by officers for the sake of safety of all in the midst of a Pandemic.

## 인천공항, 우리가 지킨다!

### We are the guardian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코로나19 관련 서류교부대, 입국심사대 등 이용객 접점에는 모두 아크릴판을 세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두리 움까지 막을 수는 없을 터. 해외 각국에서 들어오는 이들과 마주하는 출입국심사관들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재심시 승객이 마스크를 내린다거나 쓰던 펜을 건네받기라도 하면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내 모든 심사관들은 안전하고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심사6과  
정주연  
출입국관리서기보  
Jeong, Joo-yeon,  
Immigration Officer from  
Border Control Division 6

#### Q.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출입국심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How are you responding to revised immigration clearance after the Pandemic?

A.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업무 속도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주소·PCR·진단서를 확인하고 국가별·체류자격별로 알맞은 자료를 배부하는 등 심사 시 고려사항이 많아진 것은 물론이고 관련 내용이 자주 바뀌기도 하거든요. 인천공항 내 협업 요청사항을 부지런히 확인하고, 아는 내용도 옆 심사관이나 재심 직원분께 재차 물어가며 실수 없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ings have become much more difficult and complex after the Pandemic. Travellers' address, PCR test result and medical certificate should be checked one by one and the right document package should be handed out, which differs depending on their nationality and residential status. More things should be considered during immigration clearance as described, and frequent revision of guidelines make things even more complex. That is why I regularly check collaboration request in the airport and ensure everything is done without error by asking other officers with more experience and staff members in charge of secondary inspection to re-check information. Sometimes information I know can already be obsolete the next day.

#### Q. 심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으셨는지 궁금합니다

What efforts did you invest to upgrade your screening abilities?

A. 저는 재심 계장님을 귀찮게 하는 편인데요. 승객 재심 인계 후 재심 계장님께 관련 내용을 여쭙습니다. 케이스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면 지침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까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I ask a lot of questions to senior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secondary inspection. After directing a passenger for secondary inspection, I ask questions to the officer who interviewed that passenger to gain information on what happened during the secondary inspection. By doing so, I can gain information on various cases of all sorts, which is difficult to learn simply from our secondary inspection guidelines.





Plastic shields are installed at points where our officers and travellers meet, such as document pickup desks and immigration clearance counters to suppress potential spread of Coronavirus. This does not mean our officers are free from concern as they have to face people coming to Korea from all over the world. If a traveller directed to a secondary inspection removes face mask or hands a pen, which he/she has used, these are scenarios our officials can rightfully feel uncomfortable. Despite such challenges, all officer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re doing their best to ensure accurate and watertight immigration screening 24/7. 共

**Q.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What do you value the most during immigration clearance?**

**A.** ‘공정함’입니다. 출신 나라에 따라 심사태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출입국 공무원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선진국에서 왔든 후진국에서 왔든 차별 없는 친절과 공정함으로 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 is impartiality. Treating passengers differently depending on where they come from is the biggest misconduct I should try to stay away from as an immigration officer who execute relevant laws. Impartial immigration screening with kindness is what we should do on duty regardless of passengers’ nationality or which part of the world they come from.

**Q. 출입국심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중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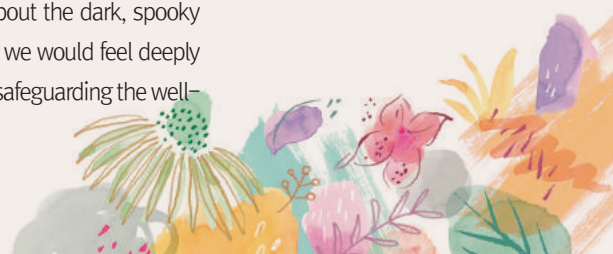
**What is a wrong common notion about a part in immigration clearance that you would like to clarify?**

**A.** 재심에 인계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심사는 심사대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각종 특수언어 능력을 보유한 재심관들이 최선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으니 영화 속에 묘사된 어둡고 무서운 재심실 이미지는 잊어주세요~! 덧붙여, 저희 모두 국경의 최일선에서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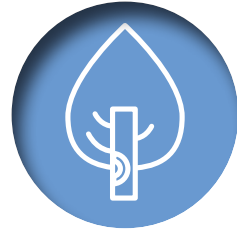
Many passengers are afraid and even annoyed by being directed to a secondary inspection. Asking for a secondary inspection is a required process to resolve an issue, which is difficult to clear up at an immigration clearance counter. Many expert interviewers who specialise in minor languages do their best to listen to their problems. Our secondary inspection rooms are equipped with amenities such as air purifiers, drinking water dispensers, so please forget about the dark, spooky image of secondary inspection rooms you are used to see in films! Lastly, we would feel deeply rewarded if passengers fully understand the job we do is directly linked to safeguarding the well-being of our loved ones and securing our borders to make this nation safe.



입국재심1과  
서민정  
출입국관리서기  
Seo, Min-jeong,  
Immigration Officer from  
Secondary Inspection  
Division 1



# 중부권 외국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곳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글 | 신시내 사진 | 이동훈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충북 지역 3개 시와 6개 군의 출입국 및 외국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주공항을 오가는 외국인과 중부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한국살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사무소는 점차 늘어날 외국인 업무에 대비해 공항출장소 설치, 청사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곳이다.





### 국토의 허리인 중부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청주사무소')는 충북 9개 시·군을 비롯해 청주공항의 출입국업무를 맡으며 충북 유일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본래는 충청북도 전체를 관할하다가 2011년 5월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영동군과 옥천군 관할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전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됐다. 청주사무소가 담당하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에는 약 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대한민국 전체 등록외국인의 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청주사무소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부여 등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발급 ▲외국인 동향조사 ▲출입국관리 법령 위반자 단속 등 선박심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국·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청주사무소에서 출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표하는 관문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 이용객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출장소 설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

### 코로나19 적극 방역으로 만드는 '안전한 사무소'

청주사무소는 방문하는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 방문예약 창구를 올해 8월 20일부터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온

라인으로 방문예약을 해도 처리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됐다. 온라인 방문예약이 폭주하면서 도리어 당일 현장 방문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창구 구성을 조정한 뒤로 더 많은 민원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의 업무 처리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도 덩어 얻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청주공항의 출입국업무는 출장소 개설을 고려할 만큼 주요한 업무였지만,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당분간 운영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청주사무소는 여유 인력을 사무소 내에 재배치하고 내부 업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제한이 강화되면서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집행이 어려워져 이들에 대한 보호도 장기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주사무소는 보호전담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방역 위기를 막고자 청주시·진천군·음성군 등에 있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인력소 등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역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매일 일과시간 후 사무소 시설 구석구석을 철저히 방역하고, 직원들은 하루 2회 코로나19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 간 출퇴근 시간과 식사 시간도 나누어 운영한다. 새로 도입된 전화 발신기록 활용 출입명부 시스템으로 방문 민원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윤상용 소장

며,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시행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사무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사무소 윤상용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모두 친절하고 공정한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따름”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소장으로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 바로 그 미소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심을 전했다.

### 개인의 행복이 조직의 행복으로

윤 소장은 청주사무소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마음을 쏟고 있다. “이전에는 나보다 조직을 우선시하고,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화가 바뀌어야 할 때”라며 “이에 발맞춰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청주사무소는 ‘갑질 예방 10계명’을 정해 수평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 간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승진해서 전입한 직원도 타 사무소에 비해 많은 편이다. 덕분에 사무소 분위기가 젊고 역동적이며, 직원들도 조화롭게 일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 다재다능한 직원도 많아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것 역시 청주사무소의 자랑이다. 윤 소장은 “행복한 직장은 조직이 아닌 개인이, 누군가가 아닌 나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이 목표

청주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등록외국인의 약 90%는 청주시·충주시·음성군·진천군 4개 지역에 체류하고 있다. 그중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신흥 공업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청주사무소는 청사를 증축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승인 면적 1,101㎡로 2022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다문화플러스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법무부 체류 관련 민원과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등의 업무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3월 중 센터 개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

청주공항이 정상화되어 국제선 운행이 재개되면 청주공항출장소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그리는 데다 청주공



항을 거점으로 하는 Aero\_K 항공사 설립으로 청주공항 이용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윤 소장은 곧 퇴임을 앞둔 선배로서 그간의 공직생활을 돌아보며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윤 소장은

“따뜻한 가슴에서 동료로 향한 배려와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이 배어나오며, 식지 않는 열정에서 성실함과 적극성이 배어나오는 것 같다”며 “소장이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가슴과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共**



청주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직원을 칭찬합니다!



**민원인의 칭찬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위해 방문했다가 깜빡하고 사무소에 휴대 전화를 두고 왔어요. 금요일 밤 시간에 연락이 닿아 당장 찾으러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말에 들러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출입국 직원이 되고 싶어요”

이지홍 반장은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창구에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을 발견했다. 돌려 주고자 곧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민원인과 연락이 닿았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당장 돌려드릴 방법이 없고 고민하다, 주말인 다음 날 휴대전화를 전달드리기로 했다. 민원인이 감사의 표시로 사례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반장은 “규정상 그럴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이에 민원인이 칭찬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남긴 것이다. 이 반장은 “사소한 일인데 이렇게 칭찬글까지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반장은 “처음 출입국업무를 지원할 때는 멋진 제복, 공항에서 일하는 모습만 생각했다”며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대면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상황상 도와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며 “억울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힘이 닿는 한 많은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출입국 직원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끝으로 이 반장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얼마 전 결혼한 한지영 계장님, 꼭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축하의 말과 “선배님들이 있으셔서 힘들고 고된 체류업무를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진심을 전했다.



이지홍 반장

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도입목적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 신고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숙박업자\*\*\*의 신고의무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방법

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

\* 경보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자

※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신고기관 및 연락처

신고기관	관할구역	E-mail	연락처	팩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seoulimmigration@korea.kr	T. 02-2650-6261 C. 010-2035-8593	F. 02-2650-4541
	경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sejongnoimmigration@korea.kr	T. 02-731-1730 C. 010-3285-1752	F. 02-731-179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seoulsouthimmigration@korea.kr	T. 02-6980-4913 C. 010-2670-6219	F. 02-6980-4985
	경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	전체	incheonimmigration@korea.kr	T. 032-890-6365 C. 010-2036-6733	F. 032-890-6380
	경기	부천시, 김포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경기	안산시, 시흥시	ansanimmigration@korea.kr	T. 031-364-5723 C. 010-2781-7798	F. 031-401-5724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기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suwonimmigration@korea.kr	T. 031-695-3935 C. 010-2036-7296	F. 031-695-3930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경기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pyeongtaekimmigration@korea.kr	T. 031-8024-9617 C. 010-3980-1345	F. 031-8024-9640
양주출입국·외국인청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고양시, 파주시	yangjuimmigration@korea.kr	T. 031-828-9491 C. 010-4316-3451	F. 031-828-9467
	강원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전체	busanimmigration@korea.kr	T. 051-461-3085 C. 010-5442-7161	F. 051-461-3080
	경남	양산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경남	김해시, 밀양시	busanimmigration@korea.kr	T. 055-344-7835 C. 010-3476-1345	F. 055-344-7812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	전체	ulsanimmigration@korea.kr	T. 052-279-8043 C. 010-2016-7195	F. 052-279-8058
	경북	경주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남	진주시, 창원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changwonimmigration@korea.kr	T. 055-981-6007 C. 010-4947-9275	F. 055-247-9148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전체	jejuimmigration@korea.kr	T. 064-741-5440 C. 010-6816-3451	F. 064-741-549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yeosuimmigration@korea.kr	T. 061-689-5653 C. 010-2018-7504	F. 061-684-6975
	광주	전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남	나주시,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gwangjuimmigration@korea.kr	T. 062-605-5221 C. 010-6546-3451	F. 062-605-5277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	전체	jeonjuimmigration@korea.kr	T. 063-249-8693 C. 010-4349-3451	F. 063-245-6168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	전체	daeguimmigration@korea.kr	T. 053-980-3551 C. 010-6820-3451	F. 053-980-3587
	경북	전체(경주시 제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원	전체(철원군 제외)	chuncheonimmigration@korea.kr	T. 033-269-3209 C. 010-4350-3451	F. 033-269-329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	전체	daejeonimmigration@korea.kr	T. 042-220-2130 C. 010-7249-3451	F. 042-255-0496
	충남	전체			
	충북	영동군, 옥천군			
	세종	전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북	전체(옥천군, 영동군, 세종시 제외)	cheongjuimmigration@korea.kr	T. 043-230-9073 C. 010-2033-4093	F. 043-236-4999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국인 고용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글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

### 팬데믹이 초래한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의 변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과 달리 겨울 들어 재확산 조짐이 있고 내년에도 전염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시휴직자 및 실업자가 늘고 있다. 상용직 종사자 수도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이 고용불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경기 동향을 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

를 보인다. 제조업, 음식·숙박, 도소매, 교육서비스, 예술·여가,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수요 위축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대면 산업이나 농업, 돌봄노동과 같은 필수업종은 일자리 변동 폭이 적거나 오히려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국가 간 이동 제한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외국인 노동시장의 상황도 바꿔놓았다. 2020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10만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5만 명이나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 중 77%가 단기체류 외국인이다. 이처럼 단기체류 외국

인 유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법체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경 봉쇄 등으로 기존 입국자가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이들이 취업하는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사업주에게 발급한 고용허가서는 3만 건에 이르지 만 신규 입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용허가제 체류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체류자도 대부분 줄어들었다.

외국인 노동시장도 내국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업



다양화하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맞춰  
장단기 관점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일감 감소로 외국인 취업자들도 실직 위험에 놓이거나 일거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농업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나 필수 업무가 요청되는 돌봄노동 분야 등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고용형태의 변화도 감지된다.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파견을 받아 활용하는 경우나 계절 고용 또는 초단기 수요에 대응하는 임시 및 일용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은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이나 임시고용형태의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임금단가가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들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전후가 구분되는 뉴

노멀(New Normal)을 이야기한다. 코로나19는 고용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는 동시에 장기적인 구조적 변동 및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노동시장의 재편을 촉발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글로벌화 및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의 재편을 가속화하거나 그 방향성을 조정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경제 및 산업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급속히 진행됐다. 기술의 발달은 인공지능(AI) 및 네트워크 기술(IoT)과 결합 또는 융·복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진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혁신을 동반하면서 일자리 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촉진될 전망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테다.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대형마트의 무인계산대, 무

인점포 등 비대면 방식의 영업이 확산되고, 기술혁신 및 자동화 도입으로 노동절약형 산업구조로 변화해감에 따라 일자리 구조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단순 반복 직무 및 생산 업무는 감소할 전망이며,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대체가 얼마나 용이한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기존의 모습과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글로벌 분업체계에서는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 내에서의 외국인력 수요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통적인 외국인력 수요국가들은 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보호무역 강화와 인적교류 약화를 촉발해 탈세계화 추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비대면 기반의 ICT 서비스 산업에서 코로나19가 국제 분업체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고용정책 정비, 공존 대한민국의 첫걸음

외국인력 활용의 당위성은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이라는 기초하에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는 데 있다. 외국인력의 활용은 다양한 파급 효과를 야기한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산출효과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도 있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변동, 기술혁신, 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이에 따른 노동수요의 구조 변화는 외국인력 정책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숙련수준의 외국인력 그리고 다양한 인력 유입 및 활용 방식이 필요해지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역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분절된 외국인력 공급방식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폭넓은 전문성의 스펙트럼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전통적인 고용계약형태도 외국인력 수요구조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몇 년간 불법체류자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현행 외국인력 제도와 공급 방식이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재와 같은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 체계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당장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양화하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맞춰 장단기 관점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디지털 전환과 맞물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외국인력의 도입 및 활용이 국내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완성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외국인력 유입 규제라기보다는 향후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숙련된 외국인력이 우리 노동시장에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력의 정착은 가족 동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 지원 및 이민자와 내국인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민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외국인력 및 이민자 관련 정책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때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의 정책까지도 포괄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미래를 대비해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共**



# 2021년 6월부터 ETA(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합니다

Korea to launch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  
in June, 2021

## 이용과정/Flow Chart



ETA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Apply for ETA  
(Website, mobile app)



ETA 심사결과  
통보

Notification of ETA  
Assessment Results



항공권  
발권 및 탑승

Flight ticket issuance  
and Boarding



입국심사

Entry Immigration  
Clearance

## 대상/For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허가 대상국가 46개국 국민  
Nationals of 66 visa waiver countries, and nationals of 46 visa-free countries

### Q: 전자여행허가제(ETA)란 무엇인가요/What is an ETA?

A: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개인정보와 입국목적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사전에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It is an entry authorization process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submitted online in advance for foreign visitors (who can enter without a visa) prior to their entry to Korea.

### Q: ETA는 왜 시행하나요?/Why is Korea implementing ETA?

A: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고,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Korea is implementing ETA to provide convenient entry to low-risk foreign travelers, and at the same time to fundamentally block inadmissible foreigners from boarding a flight to Korea at their point of departure.

### Q: ETA의 장점은 무엇인가요?/What are the benefits of ETA?

A: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승객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편리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ravelers who are approved of an ETA in advance can experience convenient immigration clearance as they will not be required to submit an entry declaration card upon arrival.

### Q: ETA는 어떻게 신청하나요?/How do I apply for an ETA?

A: 대한민국으로 출발하기 최소 72시간 전, ETA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본인 메일로 ETA 허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You can apply through the ETA website\* or mobile application no less than 72 hours before your flight to Korea. The results of your application will be notified by e-mail.

\*홈페이지는 3월 중 오픈 예정(수수료 한화 1만 원) / Due to open in March 2020(ETA fee: KRW 10,000)



# Find the right visa for your stay using the KOREA VISA PORTAL



## About the KOREA VISA PORTAL

The KOREA VISA PORTAL is a website which provides online visa application services, offering all the useful information for foreigners wanting to visit or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visa issuance, immigrant investor scheme and the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KVAC). Anyone can avail the website's services relating to visa information without joining the membership. Currently, only businesses, agencies, universit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re allowed to sign up for the KOREA VISA PORTAL website, whereas individuals are not able to join the website's membership due to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 Available Services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alike are eligible to join the HiKorea membership and relevant civil petition services are available depending on users' log-in information.

### ①-②: Visa Guide

The HiKorea website offers e-Application services in various You can find the appropriate visa type by inputting your purpose of entry, length of stay on 'Visa Navigator(①)', or by selecting a relevant purpose on 'Visa Guide Categories(②)'. Information on visa application procedures, fees, entry, status of stay and embassy locations is also available on the website.

### ③: Application

You can print out your visa grant notice, if necessary, on the KOREA VISA PORTAL website. In addition, the website provides various online application services such as Visa Application with e-Form, Work and Visit Visa Lottery, and Application to Change Passport Information. Previously, by-proxy applications of an individual, agency and inviting person were available. Yet, applications by-proxy individuals are now unavailable due to the pandemic situation.

### ④: Check/Issuance

Visa application status and process can be found on the website, including work and visit lottery results.

### ⑤: Immigrant Investor Scheme

The website also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which grants F-2(Resident) status for foreigners meeting the certain investment requirements, as well as on other immigrant investor schemes. Detailed information on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Real Estate and Investment Project in Rural Area can also be found on the KOREA VISA PORTAL.

### ⑥: Help Center/Korea Visa Application Center(KVAC)

FAQs, notice and archives services are available, including homepage links to the 9 overseas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s.

# INSIDE

01

##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은행을 통한 현금 일시불 납부만 가능하던 것이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http://www.giro.or.kr))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상 방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해 출국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도 함께 시행해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강제퇴거명령 대신 스스로 출국하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해 인권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유행 속 보호시설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 명령시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일부가 귀속되면 그 잔액을 반환한다.



02

## 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 조치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추가 출국 조치를 취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 사항 조사 및 심사결정을 마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했고,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이번에 강제퇴거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격리시설에서 도주하려다 검거됐거나 자가격리 중 수차례 격리지를 이탈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접촉자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다. 이외에 격리시설 입소 후 비용 납부를 거부하며 조기출국을 희망한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격리 의무에서 해제되었다고 생각해 격리해제 전 격리지를 이탈하는 등 동거나 위험이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출국명령 또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03

###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배타적 어감이 강한 'Alien' 삭제·변경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라는 단어가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이하 '멘토단')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다. 멘토단은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명에 사용된 'Alien'이라는 단어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여러 안 중 선호도가 가장 높고,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인 'Residence Card'를 새로운 영문표기명으로 채택했다. 해당 사안은 2020년 내 시행규칙 개정 완료, 2021년 1월부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새로운 영문표기명이 사용되도록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제공 중인 외국인등록증의 유효 확인과 외국인의 취업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외국인등록증 후면 하단에 안내문구(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http://www.hikorea.go.kr>)를 추가하는 서식 개정도 포함하고 있다.



## 04

###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 집중단속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외국인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최근 불법취업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국민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배달업, 제조업, 건설업 등 서민일자리 분야에서 862명을 적발했다.

또한 SNS상에 불법입국 및 취업 외국인 모집 글이 다수 게시되고,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마약 투약과 무분별한 집단모임이 이루어지는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안전 분야(171명 적발)와 유흥 분야(261명 적발)에서도 다수 적발했다. 법 위반 외국인 총 1,294명과 불법고용주 254명, 불법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 등 총 1,573명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적발된 외국인은 조사 중(101명), 구속(4명), 출국(885명), 범칙금(232명) 부과 등을 조치했고 불법고용주는 불구속 송치(17명), 고발(5명), 범칙금(232명) 부과 조치했으며 불법입국·고용 알선 브로커는 조사 중(5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10명), 범칙금(7명)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무자격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고용 중인 국민을 해고하는 사례를 엄단해 국민 일자리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 Lodging Registration of Short-term-stay Non-nationals required from 10 December 2020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is scheme will be introduced to minimise economic damage and ensure public safety by having short-term-stay non-nationals' address information up to date should an infectious disease or terrorist attack occurs.

Our Immigration Act Article 81 (3)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this scheme and accommodation facility owners should report short-term-stay non-nationals' lodging information when

- a) the crisis alert level issued in line with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s raised to "cautious" level, or
- b) the crisis alert issued in line with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is raised to "caution" level.

※ **Alert levels are classified into four levels: attention – caution – alert and serious**

If either of the abovementioned situation becomes a reality, short-term-stay non-nationals should present his/her passport or a travel document to the owner of the lodging facility where he/she is staying. Short-term-stay non-nationals are defined as those temporarily residing in ROK for a period not exceeding 90 days for tourism and short-term visit.

Lodging facility owners are also entailed with a responsibility to report short-term-stay non-national guest(s)' informa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12 hours of an raise in crisis level as described above. Lodging facility owners are defined as those who registered their business as a) lodging business in line with Public Health Control Act, b)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City home-stay services for foreign tourists or Traditional Korean housing experience business in line with Tourism Promotion Act.

They should report their short-term-stay non-national guest(s)' information to an immigration office in his/her jurisdiction of business operation by using the attached format sheet via email, telephone or FAX, until a dedicated system to report this information is set up, which is expected during the first half of 2021.

This requirement will come into force on 10 December 20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